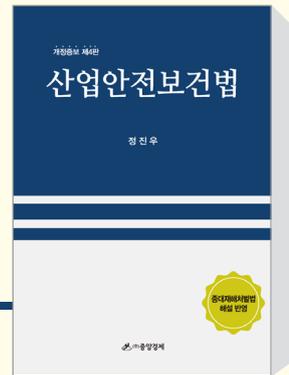


책으로 만나는 산업보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 제4판



저 자 : 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출판사 : 중앙경제

발간일 : 2022. 1. 2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 제3판 이후에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개정판을 출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증보 제4판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의 법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을 하나의 장(제10장)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에 해당하는 설명을 여러 군데(도급, 발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서 보필(補筆)하였다. 또한 최근에 일간지와 전문지에 실렸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필자의 칼럼이 관련되는 부분에 소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이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접근이 타당하다. 그런데 정치권의 생색내기, 정부의 무지, 일부 시민·노동단체의 무모함이 합작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사실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악과 문제 있는 규정의 방치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불러온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에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분히 중복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앞으로 산업 현장은 안전원리와 법리를 둘러싸고 큰 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실질보다는 형식이 지배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전문성과 논리는 온데간데 없고 보여 주기와 감성이 지배하면서 산업안전보건이라는 배가 산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안전원리와 법리를 이렇게 망가뜨리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일이든 실력과 진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념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관심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한마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삼켜버린 양상이다. 정부부터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역지로 부각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만을 규율하는 '기술법'이라고 왜소화시키는 황당한 인식이 이러한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엉성하고 불명확한 내용이 많은 문제투성이인데 설상가상으로 안전원리에 맞지 않고 더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되어 법 집행(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이 횡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집행을 방지하고 예측 할 수 있고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 영역의 큰 과제가 될 것 같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두 개 법은 싫든 좋든 현장에서 막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런 만큼 이 법들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한계까지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의 문제점을 모른 채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수범자의 안전역량 향상으로 이어지지도 못할 것이다.

저자로서는 이 책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산업안전보건 영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미력하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건설링기관, 산업안전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공인노무사, 안전을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체계적이고 정확하며 깊이 있게 학습하는 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